

## 패션 트렌드의 多重化 現象에 對한 範疇 分析

- 1995 S/S~2001/2002 A/W 시즌을 中心으로 -

尹秀貞\* · 李株炫

延世大學校 生活科學研究所 研究員\*, 延世大學校 衣類環境學科 副教授

## A Domain Analysis on the Hybrid of Fashion Trends

- Fashion Trends of 1995 S/S ~ 2001/2002 A/W -

Yun, Su-Jeong\* and Lee, Joo-Hyeon

M.A., Researcher,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Associate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cultural and general trend of the times on fashion trends and the hybridization of these trend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suggest new approach method of the fashion forecasting and to find out the cultural meanings and values of fashion.

Key words that explains fashion trend from spring/summer of 1995 to fall/winter of 2002 were collected from professional fashion trend journals. These terms were analysed with domain analysis based on the semantic relationship. The frequency of their appearance in each season and the aspect of their appearance in each season were analysed. The hybrids of the fashion trends were analysed longitudinally and cross-sectionally as well by investigating the cover terms that were found as a result of domain analysis.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future study of fashion trend in that it offers an objective view of fashion trend and can allow researchers to study fashion trend in a concrete way.

Key words: domain analysis(범주분석), fashion trend(패션 트렌드), hybrid(트렌드 다중화 현상), modernism(모더니즘), post-modernism(포스트모더니즘)

### I. 서론

세계가 점차 다원화되고 소비자 개개인의 특성이 중시되면서 오늘날의 패션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다(Textile View 1999). 이러한 최근 패션 트렌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의 문화적 흐름의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20세기 트렌드에 지

배적 영향을 미쳐온 대표적인 문화의 흐름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과 모더니즘(modernism)을 들 수 있으며 이 양대 경향은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순수 예술 영역 뿐 아니라 패션을 비롯한 모든 산업 분야의 트렌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이래의 패션 트렌드에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적 영향이 복합되고 교차되어 반영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그 양상은 매우 다양

하고 복잡하여 규칙성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복합화, 다중화 되어 가는 패션 트렌드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를 시장에 적용하여 패션 트렌드 정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최근 트렌드의 복합적 교차 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나, 관련 선행 연구들 중에는 최근 트렌드의 복합적 다중화 현상에 대해 실증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패션 트렌드에 문화적 영향들이 복합되고 교차되어 반영되는 현상을 실증적이며 질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트렌드에 대한 연구방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뿐 아니라, 패션의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1) 패션 트렌드에 반영된 문화적·시대적 영향들을 고찰하고 2) 문화적·시대적 영향원들이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3) 패션 트렌드에 문화적·시대적 영향들이 반영된 양상과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의 실증적 고찰 범위는 1995년 이래의 패션 트렌드로 제한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범주분석(Domai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

### 1.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패션 트렌드에 미친 영향

문화와 패션 트렌드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패션 트렌드를 이해하고 예측함에 있어 문화적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20세기의 문화적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지배해 온 대표적인 흐름으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들 수 있다(정현숙 1995; 이주현 1996; 김민자 1998; 박명희 1991 재인용, 박명희 1999).

#### 1) 조형예술에 나타난 모더니즘 · 포스트모더니즘

##### (1)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산업혁명 이래 발달한 문화사조로서, 인간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유토피아에 도달할 수

있다는 합리주의의 논리 위에서 발달하였다. 모더니스트들은 예술에 있어서의 유토피아는 곧 예술의 순수성이라는 단일체계의 절대가치라고 전제하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실험정신과 이데올로기적 이원 논리로 시대를 조망하는 태도를 유지하였다(Lynton, N. 1993; 이주현 1996 재인용).

20세기에 들어와 장식예술에서는 모더니즘적 입장의 기능적인 선과 장식의 단순함이 요구되었으며 과학적인 접근, 예술의 민주화, 기능화에 따른 일련의 현대 디자인 운동으로 구성주의(Constructivism), 퓨리즘(Purism), 데 스틸(De Stijl), 바우하우스(Bauhaus) 운동 등이 전개되었다(박명희 1991). 특히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의 모더니즘의 기본 이념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슬로건 하에 '불필요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기능에 충실한다'는 데에 있었으며, 이는 기계미, 추상미, 단순성을 추구하는 당대의 예술사조와 규칙화, 보편화, 경제성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정신과도 부합되었다(김경린 1994).

모더니즘의 정신이 나타난 대표적인 조형운동으로는 구성주의, 미래주의(Futurism)와 미니멀리즘(Minimalism) 등이 있으며, 1960년대 이후, 비디오 작업을 시도했던 많은 미술가들도 테크놀로지와 예술을 접목하였다는 점에서 모더니스트들로 분류되기도 하였다(London 2000).

#### (2) 포스트모더니즘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모더니즘이 추구해 왔던 '새로운 것을 위한 시도'가 한계에 다다르게 되자, 모더니스트들이 추구하였던 단일가치는 점차 그 절대성을 잃게 되었으며, 이를 대신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50년대 말에 순수 미술 분야에서 태동한 포스트모더니즘은 1970년에 이르러서는 영상, 패션, 건축 등 다양한 산업디자인분야에 파급되었다(Jencks 1993; 이주현 1996; Suzi Gablick 1984; 나채희 1986).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다원주의(pluralism)적 절충주의(eclecticism)적 경향으로 집약될 수 있는데, 다원주의란 모든 주제와 양식에 대한 열린 태도를 의미하며 궁극적인 가치개념을 부정하며 수직적 위계질서보

다는 수평적인 다양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서(Lynton, N. 1993). 그 예는 1970년대 중반 경부터 여러 지역에서 각기 자국의 문화, 사회, 역사를 배경으로 각각의 명칭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한 다양한 미술경향을 들 수 있다(Lynton, N. 1993). 한편 절충주의란 다양한 이질적 요소들을 한 단위 안에서 절충·혼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기존의 가치관과 이미지에 대한 탈피 및 대담한 수용, 상대성, 다원론, 관용주의들의 속성으로 표현된다. 절충주의는 혼합을 통해 그 성격이나 특징이 변모되는 것과, 이질적인 것들이 단순히 혼합되는 것으로 양분될 수 있으나 후자보다는 전자적인 경향이 더욱 지배적이어서, 절충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이미지로 재생산되는 경향을 띤다(양희영, 양숙희 2000).

## 2) 패션에 반영된 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서도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단순하고 기능적인 복식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패션에 반영된 모더니즘의 특징은 단순성, 기능성과 실용성이라 할 수 있다(신현숙 2001). 모더니즘 패션 디자인을 구현한 최초의 디자이너인 Gabrielle Chanel은 이전까지 여성복에 사용되지 않았던 저지(jersey), 트위드(tweed) 등의 실용적인 소재를 여성복에 적용하여 디자인하였으며 모더니즘의 비례, 수평, 수직 이론을 디자인에 접목시켜 단순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그 외에 모더니즘의 맥락을 이어온 패션 디자이너로서는 Jean Patou, Halston, Donna Karan 등을 들 수 있다(Milbank 1985).

패션에 있어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패션에 반기를 들고 인간의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욕구를 패션에 표현하였으며 다양한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은, 1980년대 이래 패션의 조형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소재의 사용이나 착장 방식의 해체, 이질적인 요소들 간의 절충과 혼합, 시간, 공간, 성에 대한 해체와 상호 절충주의,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해체에 의한 양성적(androgynous) 룩, 은유와 상징 기법, 주류 문화의 일방적 지배로부터 벗어난 스트리트 패션(street fashion)과 같은 하위문화 패션요소의 도입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조규화 1996, 신

현숙 2001 재인용; Kroker & Ather 1986 박명희 1999).

## 3) 패션 트렌드에 반영된 문화의 영향

국내 의류학 분야에서도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현대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 온 문화의 양대 흐름으로 보는 입장의 연구들이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 왔다.

나채희(1987)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패션 디자인의 특성을 장식적 수공예기법과 현대적 감각의 절충, 현대적 액세서리나 착장법에 따른 전통적인 이미지 변화, 남성복 요소와 여성복 요소의 혼합, 동·서양 양식의 상호절충 등으로 요약하였다.

박은실(1991)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고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영향을 받은 복식의 특성을 고전주의, 절충주의/복고주의, 감성주의/관능주의, 양성화 룩, 오리엔탈/민족주의, 원시주의, 아방가르드/초현실주의의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정현숙(1995)은 문화적 흐름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과 패션의 입체적인 상호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무질서하게 보이는 최근 패션의 경향이 일탈적 현상이 아니라 1980년대 이후의 문화논리의 결과 및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저항, 해체, 혼성모방을 들었고 특히 비주류 하위문화의 패션이 패션 트렌드의 주류에 도입되는 것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설명하였다.

이주현(1996)은 91년부터 96년까지의 전반적 패션 트렌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원주의, 탈이원논리, 환경에 대한 관심고조,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네 개의 영역 중 다원주의와 탈이원논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속성과 일치한다고 하여 박명희(1991), 나채희(1986)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김민자(1998)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담론에 기초하여 패션의 미적 가치를 기술, 해석, 평가한 결과,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예술의 종말에 따른 패션의 민주화, 다원성과 탈 중심화, 혼성모방(pastiche), 왜곡, 풍자, 패러디, 키치, 절충주의 등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해방과 자유의 반미학 등으로 분석하였다.

박명희(1991, 1999)는 현대 건축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과 1980년대 패션의 일반적 경향을 고찰하여 한 시대의 예술 양식의 유사성을 통찰하였고 복식에 나타난 모더니즘적 특성과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을 기술하였다.

김희균(1999)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발전단계별 특성을 屑話, 混成, 解體로 규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1990년대 후반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을 분석하였는데 설화적 요소로는 전위성을 띄는 하위문화적 요소와 이국적 요소를, 혼성적 디자인 요소로는 복고적 요소, 자연주의적 요소를, 해체적 디자인 요소로는 무성별성(asexuality), 양성성(Bisexuality)을 들었다.

신현숙(2001)은 모더니즘의 영향이 나타난 대표적인 최근 패션 트렌드로 미니멀리즘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나타난 대표적인 패션 트렌드로 맥시멀리즘을 들었으며 이에 대한 최근 소비자들의 수용현황을 분석하였다.

김기숙과 남재경(2001)은 1990년대 10년 간의 패션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199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이 매우 깊고 광범위하게 패션에 반영되었다고 진술했다.

예컨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은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가져온 기저의 문화적 양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패션에 반영된 모더니즘의 특징은 단순성, 기능성과 실용성이라 할 수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소재의 사용이나 착장 방식의 해체, 이질적인 요소들 간의 절충과 혼합, 양성적(androgynous) 룩, 은유와 상징 기법, 주류 문화의 일반적 지배로부터 벗어난 스트리트 패션(street fashion)과 같은 하위문화 패션요소의 도입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20세기동안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 2. 1990년대 이래의 패션 트렌드 동향

199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패션 트렌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공존, 복합, 다중화 되거나 또는 변형되어

존재하고 있다(정홍숙 외 1998; 이선재 1998; 정삼호, 김영숙 1996).

1990년대 전반기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리사이클 패션(recycle fashion), 에콜로지 테마(ecology theme)가 1980년대에 이어 더욱 확산되었다. 또한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풍요를 중시하였으며, 에스닉(ethnic), 네오 히피 스타일(neo-hippie style), 네오 클래식 스타일(neo-classic style) 등은 페미니즘적 표현과 함께 1990년대 전반 패션의 지배적인 테마가 되었다. 또한 20세기 후반의 다원주의에 힘입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하위 문화가 두드러지게 부상하였다(김숙현 2001). 1990년대 전반의 패션 트렌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건강과 여가를 중요시하는 트렌드가 부상하였으며 스포츠웨어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기도 하였고 1991년에는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도 스포츠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월간 멋 1990~1991).

모더니즘은 1970년대이래 포스트모더니즘에 압도되었다가 1990년대 중반이래 다시 패션 트렌드의 주된 흐름으로 등장하였고(박선형 2000)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에는 미니멀리즘, 미래주의 등의 영향이 반영된 트렌드가 부상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패션 트렌드들도 꾸준히 나타났는데, 에콜로지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으며 전통과 현재, 자연과 기술 등 이질적인 테마들을 조합하고 지나간 패션들을 부활시키는 트렌드가 꾸준히 나타났다(Interfashion Planning 96/97 A/W~01/02 A/W; Samsung Fashion Institute 96 S/S).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스포츠웨어가 세분화되었으며 스트리트 패션이 익스트림 스포츠(extreme sports) 트렌드와 결합되는 현상도 나타났다(Fashionbiz 2000; 섬유저널 1997; Texjournal 1998).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패션 트렌드의 여러 영향원들 간의 복합적 교차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패션 트렌드의 대표적인 영향원들이 하나 이상의 다른 패션 트렌드의 영향원들과 혼합되어 패션 트렌드의 하나의 테마 안에 공존하거나,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영향원들이 모더니즘의 영향이 반영된 패션 트렌드 영향원들과도 혼합·교차되는 현상들이 등장하였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문제

제 II 장에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모더니즘은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 포스트모더니즘은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가?

부가적 연구문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외 다른 영향원이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자료원 및 자료 분석 방법

##### 1) 자료원

본 연구의 실증적 고찰 범위는 1995년 이래의 패션 트렌드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고찰을 위하여, 1995년이래 매 시즌의 패션 트렌드를 기술하는 어휘와 어구들을 수집하였으며, 이들을 (주)Interfashion Planning社 및 삼성 패션 연구소가 발간한, 95 S/S부터 01/02 A/W까지의 트렌드 정보지(Interfashion Planning 95 S/S~01/02 A/W, Samsung Fashion Institute 96 S/S)들로부터 추출하였다.

##### 2) 자료의 분석 방법

전문 트렌드 정보지들로부터 추출한 어휘 및 어구들을 논리적으로 상위의 범주로 계열화시키는 '범주

분석(Domai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범주분석이란, 民族誌학자인 James Spradley (1979a, 1979b)에 의해 개발된 방법으로 비수량적인 자료들이 내포하는 공통적인 코드(code)들을 분석하여, 연구문제의 심층적 배경에 접근하는 체계화된 질적 연구방법이다(Lawrence 2000). 범주분석에는 주제어(cover term), 의미관계(semantic relationship), 포함된 어휘(included terms)의 3개 부분이 포함되는데, 주제어는 각 범주(domain)의 명칭이며, 포함된 어휘는 각 범주의 특수형 또는 부분을 의미하고,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포함된 어휘'는 트렌드를 기술하는 어휘들이었다.

의미관계분석이란, 포함된 의미들이 각 범주 안에 논리적으로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분석 대상인 'X'와 그 심층적 배경 'Y'에 접근하기 위하여, 먼저 X와 Y간에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논리적 근거 자료를 수집한 후, 수집된 'X'들을 'Y'에 수렴되도록 범주화시키는 작업이다. 본 연구의 의미관계분석의 예는 <표 1>과 같으며, 범주분석 과정은 범주분석 작업표(worksheet)를 만들어 자료를 조직적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진행되었다(<표 1>)(Lawrence 2000).

##### 3) 자료 분석의 기준

보다 체계적인 범주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분석에 앞서 예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범주분석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복합 어휘의 처리:** 복합어는 단일 의미 어휘로 분해한 후 이를 대상으로 범주분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다중의미의 비복합 어휘의 처리:** 다중의미(multi-vocal)를 가진 어휘의 경우 문맥의 의미를 고려하지

<표 1> 범주분석의 작업표의 예

포함된 어휘(included term)	*의미관계(semantic relationship)	주제어(cover term)
기능성	~의 방법(is a way of)이다	Modernism
기하학적인	~의 특성(is a characteristic of)이다	
minimal	~의 종류(is a kind of)이다	
미래적인	~의 부분(is a part of/is a place in)이다	

\*의미관계의 예: '기능'은 모더니즘의 특성이다. 'function' (is a characteristic of)Modernism

않을 경우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해당되는 트렌드 테마에서 이러한 어휘가 사용된 문맥을 고려하기로 하였고 각 주제 사전적 의미와 문맥에서 이것이 사용된 의미를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기타 기준: 위에서 언급된 기준 외에 기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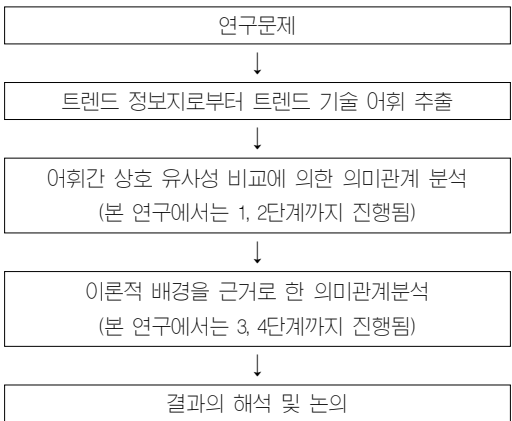
- ① 트렌드 어휘에는 트렌드를 기술하는 고유명사, 명사, 형용사, 동사 등의 단어와 어구를 포함한다.
- ② 트렌드 어휘에는 '아름답다', '예쁘다' 등의 평가적 어휘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③ 물리적 특성을 기술하는 어휘들은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물리적 특성 외 관련 감성을 포괄하는 어휘는,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 3. 연구 수행의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범주분석의 실행 순서도(flow chart)는 <그림 1>과 같다.

#### 1) 제 1, 2 단계 : 어휘간 상호 유사성 비교에 의한 의미관계분석

이 단계에서는 트렌드 기술 어휘들간의 사전적 의미의 상호 유사성을 비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휘들



<그림 1> 본 연구를 위한 범주분석의 실행 순서도

을 범주화하고 각 범주에 주제어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는, 더 이상 상호 유사하지 않은 범주들만 남은 제 2 단계까지 진행되었다.

#### 2) 제 3, 4 단계 : 이론적 배경에 기초한 의미 관계분석

앞 단계에서 도출된 범주들의 주제어들을 대상으로, 이론적 배경에 기초한 의미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주제어들을 'X'라 하고, 앞서 제 II 장에서 고찰된 문헌들로부터 패션트렌드의 영향원(Y)-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의 속성을 나타내는 어휘들을 추출한 후 이들을 기반으로, 'X는 Y의 특징이다', 'X는 Y의 부분이다', 'X는 Y의 방법이다' 등의 의미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제 4단계까지 진행되었다.

## IV. 결과 및 논의

### 1. 어휘간 상호 유사성에 기초한 의미관계의 분석

제 1, 2 단계의 분석에서 어휘간 사전적 의미의 상호유사성에 기초하여 의미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 1 단계에서 총 1029개의 주제어가 추출되었고 이들은 제 2 단계에서 총 673개의 주제로 수렴될 수 있었다. 이 때 특정 어휘가 다른 어휘들과 하나의 범주로 묶이지 않아 다음 분석 단계에서 삭제되어 중요한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 1 단계에서 다른 어휘와 묶이지 않은 어휘들은 제 2 단계의 분석에도 계속 포함시켰다(윤수정 2002). 이상의 내용을 예를 들어 기술하면 <표 2>와 같이, 제 1 단계 주제어인 'glamour', '과시적' 과 'decadence', '도발적인' 은 제 2 단계에서 각각 'glamour/과시적', 'decadence/도발적' 인 주제어로 묶였다.

### 2. 패션에 반영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전술한 바와 같이, 제 1, 2 단계까지 어휘의 사전적

<표 2> 제 1, 2 단계의 의미관계 분석의 예

2단계	1단계	원자료(raw data)
glamour/ 과시적	glamour 과시적	glamour, 관능적, 매혹, 섹시, 신비, 에로틱, seduction, 선정적
decadence/ 도발적	decadence 도발적인	decadence, 퇴폐적인, 타락, 병적인, 세기말적인, 허무주의 도발적인, 대담한, provocative, 비비안 웨스트우드, 충동적인
rebellious	rebellious	rebellious, 반항적인, 거부

의미에 기초한 상호 유사성을 비교함으로써 어휘들을 범주화해 나간 결과, 제 2 단계의 결과로 얻은 주제어들은 더 이상 의미의 상호 유사성을 띠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므로, 제 3 단계부터는 2 단계까지 도출한 주제어들을 대상으로, 이론적 근거에 기초한 범주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여기에서는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1) 이론적 근거에 의한 분석 기준의 수립

건축, 미술, 문학, 음악 등의 일반 예술에 관한 몇 가지 문헌들과 의류학 분야의 선행연구들로부터 모더니즘 및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기술하는 키워드를 추출하여 이 어휘들을 제 3, 4 단계의 범주 분석을 위한 논리적 동질성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위한 자료로는 총 9개의 문헌(김민자 1998; 김옥동 1993, 1997; 박명희 1991, 1999; 박은실 1991; 이주현 1996; 정지현 1994; Brandon Tayler 1993)들을 고찰하였는데 그 중 6개는 모더니즘 및 포스트모더니즘 각각의 특성을 패션과 관련하여 서술한 문헌들이었으며 나머지 3개는 미술, 건축, 문학, 음악 등의 일반 예술에 걸쳐 모더니즘 및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을 서술한 문헌들이었다.

2) 제 3 단계 범주분석

이론적 배경에 근거를 둔 논리적 동질성 기준에 의해, 제 2 단계까지 도출된 주제어들을 보다 상위 수준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범주들을 묶어 나아가는 방식으로, 제 3 단계 범주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3 단계의 범주 분석에서는 상호 유사성을 바탕으로 어휘들을 범주화 한 것이 아니므로, 주어진 주제어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을 경우 각각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주제어의 선정이 어려우며 주제어를 선정한 후에도 선정된 주제어의 특성이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될 수 있으므로 각 범주에 새로운 주제어를 부여하지 않고 이들을 덴드로그램(dendrogram)으로 묶어 하나의 범주임을 표시하였다(윤수정 2002).

예를 들어, 97 S/S와 97/98 A/W에서 ‘구조적인’, ‘모던한’, ‘기하학적인’, ‘단순화된’, ‘geometric’은 ‘미니멀리즘’이 기하학적이고 단순한 형태와 선을 사용하여 극도의 엄밀성을 지니며, 최소한의 조형 수단을 이용해서 소극적이고 구조적인 화면을 구성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을 제 3 단계에서 ‘미니멀리즘’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3) 제 4 단계 범주분석

제 4 단계 범주분석에서는 3단계까지 도출한 주제어들을 최종적으로 ‘모더니즘’ 또는 ‘포스트모더니즘’, ‘기타’의 세 개의 범주 중 하나에 수렴시키는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예를 들어 “minimal”은 모더니즘의 특성이다.’ 등과 같이 이론에 기초한 의미관계 분석을 거쳐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범주화하였다(윤수정 2002). 제 4 단계까지 범주분석한 후 제 4 단계의 어떤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는 단어들 중에서 제 1, 2 단계에서 다른 어휘들과 묶이지 않고 제 4 단계까지 원자료의 형태로 올라온 어휘들은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간주하고 삭제하였다. 한편, 제1, 2, 3단계에서는 범주로 묶였으나 제 4 단계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두 범주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들은 ‘기타’ 범주로 분류하였다.

제 4 단계까지 분석한 결과 모더니즘 또는 포스트모더니즘 중 어느 한 쪽의 내용만으로 구성된 트렌드

테마는 전체 시즌의 54개 테마 중 총 6개(95 S/S, 95/96 A/W, 96 S/S, 01 S/S)였다. 즉 분석 대상 시즌의 전반부(95 S/S~96 S/S)에는 모더니즘 또는 포스트모더니즘 중 어느 한 쪽에만 대응되는 내용의 테마들이 주로 나타난 데 비해, 최근으로 근접할수록 대부분의 트렌드 테마들에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테마가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패션 트렌드에서 점차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간의 교차현상이 더욱 확산되어 온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한 최근으로 근접할수록 트렌드를 설명하는 트렌드 어휘의 수와 주제어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범주에 포함되는 어휘의 수가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금기숙과 남재경(2001)이 시즌별 패션 트렌드 테마의 제목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연구한 것과는, 분석 방법과 트렌드를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트렌드 테마의 제목에 사용된 어휘 뿐 아니라 패션 트렌드 테마를 기술하는 트렌드 어휘를 범주분석함으로써 하나의 테마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트렌드의 영향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고찰하여 패션 트렌드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며 미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여러 번 출현하는 어휘들에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므로, 이는 트렌드를 기술하는 중요한 어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되었다. 한편 금기숙과 남재경(2001)의 연구의 결과는, 1990년대 패션 트렌드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성격을 매우 깊고 광범위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이 시기의 패션 트렌드는 크게 자연주의, 세계주의, 미래주의, 복고주의로 분류되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는 1995 S/S부터 01/02 A/W까지의 패션 트렌드에는 포스트모더니즘 뿐 아니라 모더니즘도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이와 같은 연구 결과의 차이는 금기숙 등의 거시적 접근 방법과 본 연구의 미시적 접근 방법의 차이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범주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볼 때 모더니즘의 범주에 포함된 주제어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범주에 포함된 주제어들에 비해서 더 적은 개수의 주제

어로 구성된 듯한 양상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모더니즘 자체의 속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속성들에 비해 더욱 응집적이고 집약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이와 관련해 Taylor(1987)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새로운 인식론적 조건이 아니라 모더니즘 자체의 보다 복잡한 형태라고 하였으며, Hassan은 '포스트모더니즘은 본질적으로 형식을 파괴하는 것이며 그 문화 정신에 있어서 무질서의 상태이다.'라고 기술하였는데(Jencks 1989), 이와 같은 내용에서 엿볼 수 있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특성에 비해 더 복잡하고 다원적이며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을 기술하는 어휘, 주제어에는 모더니즘에 비해 덜 집약되고 더욱 다양한 내용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다시 말해 양대 문화적 영향원의 내용의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은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및 분석이 불균형하게 수행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이 갖는 속성의 차에서 기인한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 3. 패션 트렌드에 반영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영향의 주요 경향

4단계까지의 범주분석 결과로 얻은 주제어들을 대상으로, 종적 분석인 각 주제어의 시즌별 출현 빈도 분포분석과 횡적 분석인 각 주제어간의 교차 경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종적 분석 결과

출현 빈도는 트렌드의 각 시즌에 출현하는 빈도지수(해당 주제어가 출현한 트렌드 테마의 개수를 의미. 하나의 트렌드 테마 내에서 동일한 어휘가 여러 번 나타나면 1로 집계함)를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00 S/S에서 'elegance'는 트렌드 테마 1, 2, 3에 모두 출현하였으므로 이는 총 빈도지수에 3만큼 기여하게 된다. <표 3>은 전체 시즌별 출현 빈도 지수가 10 이상인 주제어들만 요약 제시한 것으로 여기서 음영의 농도가 짙을수록 해당 주제어가 출현한 테마의 개수가 여러 개임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각 시즌에서 중요하게 나



〈표 3〉 각 주제의 시즈널 출현 빈도 분포 a)

c)	주제어(제 3 단계 분석 결과) b)	시 즌		95	96	97	98	99	00	01	01/02	총빈도 지수 a)
		S/S	A/W	S/S	A/W	S/S	A/W	S/S	A/W	S/S	A/W	
PM	감성/예술/아티스트											12
	공상적/환상적/illusion/상상/신비스러운											13
	다양한/멀티/혼합/믹스/복합적인/조합											17
	명랑한/즐거움/pleasure/유머											13
	역사/과거/오래된/세월의/퇴색한 느낌의											10
	인간/relaxed/여유/편안한/일상적/natural/소박/전원적											41
	정신적/영혼/내면의/근원적/본질적인											12
	퇴폐적/도발적/관능적(sensual)/혼돈/유혹적/육감적											19
	counter-culture/rebel/거부/돌연변이/비일상적/다											12
	ethnic/이국적인/folklore/동양적인/zen/禪											20
M	retro/20~30년대/50년대/60년대/70년대/회귀											13
	romantic/여성적인/nostalgia											12
	Modern/Minimal/기하학적인/구조적인/객관주의											41
	미래적인/하이테크/인공적인/일렉트릭											27
	기능적인/로우테크/실용적인											17
기타	elegance/우아한										11	

a) 음영의 농도가 짙을 수록 해당 주제가 출현한 테마의 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 1개의 테마에 출현
- 2개의 테마에 출현
- 3개의 테마에 출현
- 4개의 테마에 출현
- 5개의 테마에 출현

b) 제 3 단계 범주분석에서 도출된 주제어

c) 제 4 단계 범주분석에서 도출된 주제어 (M: 모더니즘 범주, PM: 포스트모더니즘 범주)

d) 하나의 트렌드 테마 내에서 동일한 어휘가 여러 번 나타나면 1로 집계함을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00 S/S에서 'elegance'는 트렌드 테마 1, 2, 3에 모두 출현하였으므로 이는 총 빈도지수에 3만큼 기여하게 된다.

타나는 주제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시즌별로 이들의 중요도의 변화상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출현 빈도 지수가 높은 주제어들은 트렌드 전반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기술한 주제어라 볼 수 있었다.

95 S/S~01/02 A/W의 시기 중, 98 S/S는 패션 트렌드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는 98 S/S 이후부터 한 시즌에 16개 주제어의 대부분이 여러 테마에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하는 범위와 강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편으로 한 시즌 내에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트렌드에 공통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강해진 것을 시사한다.

## 2) 횡적 분석 결과

제 3 단계까지의 범주분석 결과 주제어들간의 전반적인 교차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표 4>를 작성하였다. <표 4>는 출현빈도지수가 5회 이상인 주제어들의 교차 출현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며, 세로축과 가로축은 각각 총 32개의 주제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95 S/S부터 01/02 A/W까지에서 각 시즌의 트렌드 테마 안에서 각 주제어들이 복합적으로 출현하는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4>에서 기호 '0'은 10회 출현, 기호 '1'은 1회 출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지점의 수가 '0'이면 95 S/S부터 01/02까지 두 주제어가 복합되어 나타난 회수는 총 12회라는 뜻이다.

<표 4>의 분석 결과, '미래적인/하이테크/인공적인/일렉트릭', '기능적인/로우테크/실용적인', '인간/relaxed/여유/편안한/일상적/natural/소박/전원적', 'Modern/Minimal/기하학적인/구조적인/객관주의'는 95 S/S~01/02 A/W 시즌에서 끊임없이 각 테마마다 반복해서 나타났으며 다른 주제어들과 교차되어 나타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주제어들과 교차되는 양상이 다양한 주제어를 분석하였다. 다른 주제어와 10회 이상 교차 출현하는 주제어는 6개로 다음의 주제어들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인간/relaxed/여유/편안한/일상적/natural/소박/전원적'과 'Modern/Minimal/기하학적인/구조적인/객관주의'는

각각 11개의 다른 주제어와, '미래적인/하이테크/인공적인/일렉트릭', '기능적인/로우테크/실용적인' 이 각각 4개의 다른 주제어와, '다양한/멀티/혼합/믹스/복합적인/조합'이 3개의 다른 주제어와 각각 10회 이상 교차되어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특히, 'Modern/Minimal/기하학적인/구조적인/객관주의', '인간/relaxed/여유/편안한/일상적/natural/소박/전원적'은 거의 모든 주제어들과 교차 출현하는 회수가 최소 5회 이상으로 나타나, 트렌드에서 중요한 주제어들임을 알 수 있었다.

## 3) '기타' 범주에 대한 고찰

제 4 단계까지 범주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주제어들과 어휘(1단계에서 다른 어휘와 하나의 범주로 묶이지 않은 어휘)들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본 연구의 연구문제 '모더니즘은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미친다.'와 '포스트모더니즘은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미친다.'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제 4 단계 범주 분석 결과,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 '기타' 범주로 분류된 주제어들도 발견되었다. 이것은 95년 이후의 패션 트렌드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양대 문화의 영향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기타' 범주 주제어들의 각 시즌별 출현 빈도 수를 분석한 결과, 빈도수가 2회 이상인 주제어는 총 16개이며 이 중 3개는 빈도수가 5회 이상이었으므로 '기타' 범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이 주제어들을 유사한 것끼리 범주화하고 그 빈도 지수를 집계한 결과, 총 출현 빈도 지수가 5회 이상인 '기타' 범주의 주제어에는 '고급스러운/럭셔리', '긍정적인/낙관주의/행복/well-being', '부르주아(bourgeois)', 'elegance/우아한', '진실한/진정한/real/가치/진리/본질적인', '젊음/열정/활동적인/active'이 있었다(표 4).

'기타' 범주로 묶인 어휘들은 최근으로 근접할수록 점차 더 많이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외에 최근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영향원의 영향이 증가되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표 4〉 주제어(cover term)간 교차 경향 분석표

3 단계 범주 분석 결과로 얻은 주제어	포스트모더니티												모더니티				기타			
	감성/예술/미학	개인의/개인적인	여성/여성적/여성성/여성주의/여성주의적/여성주의성	문화/문화적/문화성/문화주의/문화주의적/문화주의성	다양한/다문화/다문화적/다문화성	대중적인	명량한/명량성/명량주의	연식/연식적/연식성/연식주의/연식주의적/연식주의성	포스트/포스트모더니티/포스트모더니티적/포스트모더니티성	지우론/지우론적	미시/미시적/미시성/미시주의/미시주의적/미시주의성	정신적/정신성/정신적성/정신성적/정신성성	문화적/문화성/문화성적/문화성성	Beacon/비콘/비콘성/비콘성적/비콘성성	ecology/에콜로지/에콜로지성/에콜로지성적/에콜로지성성	ethnic/에닉/에닉성/에닉성적/에닉성성	Modern/Modern/모던/모던성/모던성적/모던성성	미러/미러/미러성/미러성적/미러성성	기타	기타
3 단계 범주 분석 결과로 얻은 주제어																				
주제어(3단계 범주 분석 결과로 얻은 주제어)	감성/예술/미학	개인의/개인적인	여성/여성적/여성성/여성주의/여성주의적/여성주의성	문화/문화적/문화성/문화주의/문화주의적/문화주의성	다양한/다문화/다문화적/다문화성	대중적인	명량한/명량성/명량주의	연식/연식적/연식성/연식주의/연식주의적/연식주의성	포스트/포스트모더니티/포스트모더니티적/포스트모더니티성	지우론/지우론적	미시/미시적/미시성/미시주의/미시주의적/미시주의성	정신적/정신성/정신적성/정신성적/정신성성	문화적/문화성/문화성적/문화성성	Beacon/비콘/비콘성/비콘성적/비콘성성	ecology/에콜로지/에콜로지성/에콜로지성적/에콜로지성성	ethnic/에닉/에닉성/에닉성적/에닉성성	Modern/Modern/모던/모던성/모던성적/모던성성	미러/미러/미러성/미러성적/미러성성	기타	기타
주제어(3단계 범주 분석 결과로 얻은 주제어)	감성/예술/미학	개인의/개인적인	여성/여성적/여성성/여성주의/여성주의적/여성주의성	문화/문화적/문화성/문화주의/문화주의적/문화주의성	다양한/다문화/다문화적/다문화성	대중적인	명량한/명량성/명량주의	연식/연식적/연식성/연식주의/연식주의적/연식주의성	포스트/포스트모더니티/포스트모더니티적/포스트모더니티성	지우론/지우론적	미시/미시적/미시성/미시주의/미시주의적/미시주의성	정신적/정신성/정신적성/정신성적/정신성성	문화적/문화성/문화성적/문화성성	Beacon/비콘/비콘성/비콘성적/비콘성성	ecology/에콜로지/에콜로지성/에콜로지성적/에콜로지성성	ethnic/에닉/에닉성/에닉성적/에닉성성	Modern/Modern/모던/모던성/모던성적/모던성성	미러/미러/미러성/미러성적/미러성성	기타	기타

\* 전체 시든 중 총 출현빈도수가 50이상인 카테고리 포함  
 ■ 다른 주제어와 5회 이상 교차출현하는 주제어  
 \* '1'은 1회 출현, '0'는 10회 출현을 뜻함  
 ■ 다른 주제어와 10회 이상 교차 출현하는 주제어

\* '1'은 1회 출현, '0'는 10회 출현을 뜻함  
 ■ 다른 주제어와 5회 이상 교차 출현하는 주제어  
 \* 전체 시든에서 출현 빈도수가 10회 이상인 카테고리

## V. 결론 및 제언

### 1.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패션 트렌드에 미친 영향

본 연구에서는 20세기의 양대 문화적 흐름인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트렌드 기술 어휘를 표상으로 삼아 패션 트렌드에 대한 실증적, 질적 분석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트렌드 어휘는 모더니즘 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범주로 수렴되었으므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패션트렌드에 영향을 미쳐왔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모더니즘의 범주에 수렴된 주제어 중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주제어는 'Modern/Minimal/기하학적인/구조적인/객관주의'로 95/96 A/W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즌의 모든 테마에 출현하여 이는 모더니즘 내의 핵심 주제어라 할 수 있었다. 또한 '미래적인/하이테크/인공적인/일렉트릭'은 전 시즌에 걸쳐 지속적으로 출현하였으며 연구 범위의 후반 시기로 갈수록 출현 빈도가 증가하여 이 주제어가 트렌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범주에서는 '인간/relaxed/여유/편안한/일상적/natural/소박/전원적'이 한 시즌도 빠짐없이 꾸준히 출현하였고 초반보다 후반에서 더 많은 테마에 걸쳐서 반복 출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즌 두 개 이상의 테마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포스트모더니즘 내의 핵심 주제어라 할 수 있었다.

즉, 종적 분석과 횡적 분석의 결과, 'Modern/Minimal/기하학적인/구조적인/객관주의'와 '인간/relaxed/여유/편안한/일상적/natural/소박/전원적'은 전 시즌에 걸쳐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주제어이면서 가장 폭넓게 출현한 주제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기타' 범주의 트렌드 어휘들도 상당수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최근으로 근접할 수록 더 많이 출현하였는데 이것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외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영향원의 영향이 증가되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 2. 모더니즘 · 포스트모더니즘 및 기타 범주에 속하는 주제어들의 교차 출현 양상

전반적으로 볼 때 98 S/S는 95 S/S~01/02 A/W 기간의 패션 트렌드에 있어 일종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98 S/S 이후 그 이전에 비해 보다 많은 주제어들이 출현하고 복합·교차되는 경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95 S/S~96 S/S에는 한 트렌드 테마가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 어느 한 쪽에만 대응되는 경향이 높았으나, 99 S/S부터는 두 범주의 주제어들이 서로 빈번하고 폭넓게 교차되는 테마가 급격히 증가하여 트렌드가 다양화 및 복잡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양대 범주간의 교차 출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 모더니즘의 범주에 속하는 주제어들은, 이들이 출현하는 모든 테마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교차되어 출현한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의 범주에 속하는 주제어들 중에는 모더니즘의 범주에 속하는 주제어들과 교차되지 않은 경우가 95 S/S, 95/96 A/W, 96 S/S, 01 S/S의 테마에서 발견되었다.

### 3. 제언

본 연구에서는 패션 트렌드를 분석할 때 연구자의 주관성을 가능한 배제하고 패션 트렌드에 보다 객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트렌드 어휘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범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점은 패션 트렌드 분석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도 트렌드에 대한 실증적 고찰 방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료가 국내 트렌드 정보지에만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트렌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특정 어휘들로 한정될 수 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 참고문헌

- 1) 김경린, 알기 쉬운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 주변

- 이야기 - 미니멀리즘의 태동-, 서울: 문학사상사, 1994.
- 2)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 -반미학(Anti-Aesthetics), 열린 패션(Open-Fashion)을 중심으로-, 복식, 37, 1998, pp. 103-118.
  - 3)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I) -반미학(Anti-Aesthetics), 열린 패션(Open-Fashion)을 중심으로-, 복식, 38, 1998, pp. 369-392.
  - 4) 김숙현,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스포티브 트렌드의 수용 현황과 배경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5) 김옥동 편,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3, pp. 281-299.
  - 6) 김옥동 편, 포스트모더니즘과 예술, 서울: 청하출판사, 1997.
  - 7) 김희균, 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양식 연구 - 90년대 후반 복식을 중심으로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8) 금기숙, 남재경, A Study on the Analysis of Fashion Trends in 1990s -Focus on the Themes of Women' Fashion-, 한국의류학회지, 2001.
  - 9) 나채희, NEW WAVE FASHION,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10) 미디어 시티 서울 2000, "비디오의 시간과 공간-바바라 런던-", 미디어 시티 서울 조직 위원회, 2000.
  - 11)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 12) 박명희,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1980~90년대 미국 Vogue지를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학회지, 3(1), 1999, pp. 147-158.
  - 13) 박선형, 웨어러블 컴퓨터(Wearable Computer) 개념을 기반으로 한 의류상품 디자인의 가능성 탐색,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14) 박은실, 포스트모던 복식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15) 섬유저널, "In-Line Skate", 6월, 1997.
  - 16) 섬유저널, "사이버풍 크로스보드", 10월, 1997.
  - 17) 신현숙, 패션 트렌드에 대한 국내 여성 소비자의 수용 현황과 수요 분석(1998~2001년 트렌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18) 양희영, 양숙희,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Andy Warhol Look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4), 2000.
  - 19) 월간 멋, "뉴모드의 몇 가지", 9월, 1990.
  - 20) 월간 멋, "시티웨어, 원마일웨어", 5월, 1991.
  - 21) 윤수정, 패션 트렌드의 다중화·복합화 현상에 대한 질적 분석 -1995 S/S~01/02 A/W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22) 이선재, 의상학의 이해, 서울: 학문사, 1998.
  - 23) 이주현, 포스트 모더니즘과 텍스타일 디자인을 위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1), 1996, pp. 184-185.
  - 24) 정삼호, 김영숙, 현대패션모드, 서울: 교문사, 1996.
  - 25) 정지현,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패션의 양식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26) 정현숙,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27) 정홍숙, 정삼호, 홍병숙, 현대인과 의상, 서울: 교문사, 1998.
  - 28) 조규화, 의류학의 이론과 방법 - 뉴웨이브 패션-

- 서울: 일신사, 1996.
- 29) Brandon Taylor, 김수기, 김진송 역,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리얼리즘, 서울:시각과 언어, 1993, pp. 17-84.
- 30) Caroline Rennolds Milbank, COUTURE - The Great Designers, New York: Stewart, Tabori & Chang, Inc., 1985.
- 31) Charles Jencks, 도서출판 청람 번역팀 역, What is Post-Modernism? 서울: 도서출판 청람, 1995.
- 32) Fashionbiz, "Sportainment", 4월, 2000.
- 33) Interfashion Planning, 95 S/S ~ 01/02 A/W.
- 34) Kroker & Ather, The Post-Modern Scen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6.
- 35) Lawrence, N. W., Social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Massachusetts: Allyn & Bacon, 2000.
- 36) Lynton, N, 윤난지 역, 20세기의 미술, 서울: 도서출판 예경, 1993, pp. 384-400.
- 37) Samsung Fashion Institute, 96 S/S
- 38) Suzi Gablick, 김유, 이순미 역, 모더니즘은 실패했는가, 서울: 현대미술사, 1999.
- 39) Texjournal, "개주얼웨어 스포츠 믹스 열풍", 6월, 1998.
- 40) TextileView Magazine, "Generation Y: the treasure hunters", Issue #48, Winter 1999.